

#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 혁\*

## 〈 차례 〉

- I. 머리말
- II. 수준별 교육의 도입 배경과 문제점
  - 1. 도입 배경
  - 2. 문제점
- III.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실행상의 문제점
  - 1. 초등학교의 경우
  - 2. 중등학교의 경우
- IV. 개선방안
- V. 맺음말

## I. 머리말

정보화와 세계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이른바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이 1997년도에 공포되고, 이에 따라 교과서들이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5년째 접어들고 있다. 최근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에 관한 관심도 한층 그 열기를 더해

---

\*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위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새로운 교육과정<sup>1)</sup> 검토와 관련한 하나의 단초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크게 단계형, 심화·보충형, 선택형으로 분류되어 진행되는 바, 국어과의 경우 심화·보충형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7차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경우 대단원 체제 구성과 심화·보충의 선택 학습 활동에서 수준별 교육을 반영하고 있다.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경우에도 대체로 대단원 마무리의 학습활동 등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수준이나 관심에 따라 선택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교육 현장에서 심화·보충 활동의 교수·학습 활동은 커다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사들의 반응이다. 문제는 이 심화·보충 활동의 효율적 운영이야말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준비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틀과 내용은 2005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직 '제8차 교육과정'으로 선뜻 명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적, 보완적 개정에 머물지, 아니면 전반적 개정으로 나아갈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국어과의 경우 부분적 수정 보완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인 개정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 자체의 내재적 문제뿐만 아니라, 7차 교육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 자체가 우리의 현실적인 교육여건상 부적합한 시기상조의 측면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초중등학교 교과서들을 검인정 체제로 완전 전환한다면, 수준별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의 틀 자체를 크게 개정하지 않더라도 문제점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 현실은 복잡학급이면서 학급당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서부터, 40명 이상인 경우로 매우 다양하다. 이는 단지 도농(都農)간 격차뿐만 아니라, 대도시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발견된다. 실질적인 수준별 교육은 동일한 교재 내에서의 '(학습)활동의 선택'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수준과 교수·학습 상황에 맞는 '교재와 교수·학습 방법의 선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실행의 핵심 요인은 '학생, 교재, 교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존재 의의를 결정짓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제시되고 있는 심화·보충 학습 활동 차원의 해당 수업의 성패는 곧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상당히 비관적이다.

물론 기존에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운영 방안, 자료들이 제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sup>2)</sup>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상의 수준별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 없이는, 그 어떤 개선 방안도 선명한 개선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본적으로 '수준'의 개념, 수준별 교육과정의 수립 과정에 대한 재검토, 수준별 교육과정 자체와 실행상의 문제점 재점검 작업 등을 바탕으로 현행 수준별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을 앞 둔 시점에서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한 초기 개발단계의 논의들을 재검토하고,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에 실마리를 제공해 보고자 한다.

---

2)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초기 논의의 종합은 김재춘(1999), 김주훈·김재춘(1999)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이들에는 다양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관련한 이상(理想)적인 학급 편성 운영 모형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어교육과 관련한 수준별 교육의 구체적인 논의들로는 노명완(1997), 이경화(2002), 이삼형(1998), 이성영·김광명·신준식(2001), 이재승(2001, 2002), 정구향(1998), 천경록(1998), 한명숙(2001)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이인제(2003)에서는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시스템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비판적 검토를 하고 있다. 그 외 구체적인 수준별 수업 운영 방안과 관련한 여러 편의 석사논문과 각 교육청에서 개발 보급된 다양한 현장 적용 방안 및 자료들이 다수 발행된 바 있다.

## II. 수준별 교육의 도입 배경과 문제점

### 1. 도입 배경

7차 수준별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이 정확히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대체로 1995년 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마련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열린 교육과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신교육체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운영으로, 전통적 교육에서 정보화를 통한 열린 교육으로, 획일적 균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 하에 교육개혁위원회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혁을 위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위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심화보충형(국어 1-10학년, 사회와 과학 3-10학년, 초등 영어 3-6학년), 단계형(수학, 중등 영어), 선택형(11, 12학년) 교육과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요컨대 교육개혁위원회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목을 세분화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둘째로 학생들의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 교과목별 이동 수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의의는 학습 능력의 개인차에 따라 차별적, 선택적 교육을 제공하며, 학습자들에게 자기주도적인 개별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의 속도와 깊이에 대응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21세기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원대한 목표를 지니고 있기도 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은 '수요자중심', '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말에서처럼 우리 교육의 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바람직한 면을 분명 지니고 있으나, 그 출발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 2. 문제점

수준별 교육은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차에 따른 학급 편성 운영, 학급내 혹은 학급간 더 나아가서는 학년간의 이동수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우열반 운영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과도할 정도의 교육열을 갖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그 어느 것도 쉽게 이루어내기 어려우며, 적용 초기 단계와는 달리 현재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 또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국어과의 경우 수준별 이동 수업보다는 학급내 보충심화 활동이 권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과 관련한 초기 단계의 논의에서부터 이미 학생들을 수준별 학급이나 분단을 편성하거나 이동하게 하면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 간에 위화감, 부적응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배치, 상하위 계층간의 수업의 질과 양, 교사의 기대 등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존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수준별 교육의 운영이 전인교육보다는 학업 성취 중심의 교육이 될 우려, 상위 집단에 속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관련한 사교육비 증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수준별 교육과정 수립을 찬성하는 쪽이건 반대하는 쪽이건 거의 동일하게 인식한 내용이기도 하다.<sup>3)</sup>

3)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의 입안 단계, 현장 적용방안 세미나 등에서 이미 다양한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었고, 이는 교육과정 개정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쪽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난심 외(1997), 김대행(1997), 노명완(1997), 김주훈·김재춘(1998), 이삼형(1998)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렇듯 수준별 교육과정의 입안 초기 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수준별 교육과정'이 과연 교육과정으로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김경자(1998)에서의 의문 제기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으로 성립되는가에 대한 토론자의 의혹은 현장 적용을 위한 운영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이 시점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운영 방안이 제시되면서 그 의혹은 배가되고 있다. 오히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학습능력(특히 학습속도)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 중의 하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중략) 한국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은 21세기를 대비하여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 창의성 신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실천 전략으로 제안된 개념이었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방안을 세우는 가운데 창의성이라는 지향점은 약화된 듯하고, 학습자의 현재적 능력에 현재의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방법적 측면이 강조되어 온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애초에 수준별 교육과정의 개념을 정립할 때 내용의 파편화와 과대한 양의 지적 독창성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운영 방안은 우리가 파편화된 사소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데 대해 크게 신경을 쓴 듯이 보이지 않는다. 내용의 적정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략) 심화 보충을 하는 방식으로 ‘열린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교수-학습의 방법적 절차이지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사고 과정(절차적 지식)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들 다양한 방법들은 중요한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는 교수-학습 방법적 절차라는 인식이 선행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학습자 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김경자(1998: 63-64)에서의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는 수준별 교육과정 성립 초기의 배경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수준별 교육이 궁극적으로 교육 현장인 학교와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의 손에 달렸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수준별 교육과정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기에는 많은 어려움

이 있고,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주장은 널리 공감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장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김주훈·김재춘(1998: 9)에서도 '2003년 이후가 되면 과밀학급 문제가 현재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여전히 단계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교육·학습 자료 이외에도 교육 관련 인사들의 의식의 변화, 장기적인 교육 투자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면 서 학력보다는 능력을 중시하고, 획일적 평등보다는 기회 평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학업 성취 수준이 낮아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과밀 학습의 해소, 교실 및 교사 수 확충,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주 15시간 이내)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 체계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그뿐 아니라, 수준별 교육의 교육 효과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과연 수준별 교육이 모든 학습자들로 하여금 학업 성취를 증진시켜 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는 대다수 논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함수곤 교수는 더욱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훨씬 더 비판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요컨대,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별화 교수(individualized instruction)를 지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와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두 가지 면에서 교육현장에 불안과 부담을 안겨 주고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sup>4)</sup>

첫째,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교육 현

4) 함수곤, '제7차 교육과정을 진단한다.'

<http://plazal.snu.ac.kr/~vsn/eduinfor/oleader/oleader010.html>

장의 극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학습자 수준에 적합하게 제시 적용되기 어려운 획일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별 학습자의 수준이 전부 상이하므로 동일한 국가수준 기준으로 고정된 수준별 교육과정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당초부터 무리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기준에는 공통적, 일반적, 표준적인 기준만 요강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에서 당해 학교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여건에 알맞게 실행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수준별 편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근거가 있는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간략한 표준 교육과정 형태의 제시는, 우리나라의 규모나 교육 여건에 비추어, 개별 학교나 교사 그리고 시도 교육청에 자칫 지나친 부담을 가중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학습 집단의 편성 조직과 다양한 집단별 학습실의 확충, 복수의 수준별 집단을 담당할 지도교사의 배치, 그리고 수준별 학습 집단에 제공할 다양한 교재 및 교육 자료의 준비, 상급 학교 입시와 연계되어 있는 평가체제의 조정 등이 최소한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우리의 교육 상황에서 제정되는 수준별 교육과정은 사문화 될 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국가기준에는 공통적, 일반적, 표준적인 기준만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함수곤 교수의 이러한 지적은 학업 성취도 수준과 관련되는 본래적 의미의 수준별 교육과정 관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수준별 교육과정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이 구비되지 못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따른 사회 정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준별 교육의 이념이 도입 강행되었다. 이는 시대적 조류의 측면도 강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책적 판단의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제한된 교육 여건 속에서도 수준별 교육을 실행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수준'의 개념의 확대 적용은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판단된다. 즉, '수준'의 개념을 '성취도'가 아닌 '흥미'와 '관심', 그리고 '학습의 속도'까지를 아우르는 폭넓

은 개념으로 확대함으로써 실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준'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즉, 학습 성취도 중심의 수준을 '협의(狹義)의 수준(水準)' 혹은 '본래적 의미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흥미, 관심'을 포함하는 수준의 개념은 '광의(廣義)의 수준(水準)'이라고 볼 수 있다. 수준의 개념을 광의(廣義)로 잡은 것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단계형이 아닌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개발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지호(2000: 3)의 지적처럼 국어과 교육연구에서 학년별 교육 내용의 선정 혹은 위계화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7차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현실적 교수-학습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광의의 수준의 개념을 적용한 결과, 수업 운영의 유연성은 확보되고 개별화 교육의 필요성과 그 시도는 확산되었을지 몰라도, 현행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듯이, 딱히 수준별 교육이라고 내세울만한 요소는 쉽게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교사들의 부담만 증가 되었다는 현장의 불멘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함수곤 교수를 비롯한 몇몇 국어교육학자들의 지적처럼 개별화 교육을 지향하는 수준별 교육과정이 자칫 스스로 획일적 교육과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는 국정교과서 제도와 함께 상당 부분 현실로 다가온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전술한 교육학자들뿐 아니라, 국어교육학자들의 논의에서도 충분히 제기된 바가 있다. 예컨대, 제 7차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작업이 한창이던 1997년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있었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세미나에서도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었다. 그중에서도 김대행(1997: 16)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심리와 사회적 정서 문제', '교사들의 부담', '심화와 보충의 분수령을 명쾌하게 갈라 줄 잣대 부재'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매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육학자 중심으로 '계시적'으로 설정된 지침과 목표를 각 교과교육에서 곧바로 뒤따라야만 하는가"라는 뼈 있는 지적은 되새겨 불만하다. 향후에는 총론 우위의 개정 체제를 지

양(止揚)하고, 교육과정 총론 개정 작업에서부터 각과교육 전공자들도 일부 반드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은 '전면·일시'적 방법보다는 '부분·수시' 개정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타 교과들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동시 보완'의 개정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sup>5)</sup>

당시 세미나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던 노명완(1997)에서도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들로 '기본과정, 보충과정, 심화과정의 운영의 문제', '단위수업 시간의 문제', '보충기과, 심화선호 경향의 가능성', '학교 교육에 대한 낮은 기대 가능성', '기본 과정을 소홀히 할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교사와 학생, 사회에 미칠 영향들을 각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출발에서도 그러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문제인 것이 '수준'의 기준 설정 문제이다.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국어과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수준을 명쾌히 제시해 줄 수 있는 틀은 전문가들의 경험적 방법 이외에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듯하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학년별 내용 구성이나 교과서의 제재 혹은 활동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은 국어교육학자나 교사들의 경험적 판단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경험적 판단을 문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적 판단의 축적을 통해 어떤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학습자 수준에 대한 기준들이 아직 명확하게 설정된 바가 없다

5) 이인제(2003: 23)에서는 총론 중심 교육과정 개정 작업, 즉 '총론 우위 체제'의 결과 총론과 각 교과별 각론이 불일치하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국어교육 전문가가 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미시 담론들을 생산하는 동안, 총론 연구자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와 개정 방식과 운영 체제 등에 관한 담론을 생산 유통시킨다.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의 생산자도 그들이며, 국어 교과의 수준별 교육과정 유형의 그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국어과 교육과정 실무 책임자의 입장에서 고민과 문제점을 솔직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반적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다.

는 점이 문제라 하겠다. 예컨대 특정 학년에서는 어느 정도의 국어 표현 이해 능력을 지녀야 하며, 어떠한 수준의 국어적 사고력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나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전체적인 수준의 기준이 불명료한 마당에 '심화 보충'의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어과가 심화·보충형을 택하게 된 것은 수준 혹은 단계를 정확히 제시하기 어려운 국어과의 속성상 당연한 귀결이라는 시각들이 우세하다. 학년별 내용 요소 사이의 수준별 위계화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준별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기본 학습 활동이 8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한 좀더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Ⅲ.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실행상의 문제점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교과서 분석과 현장 교사들에 대한 설문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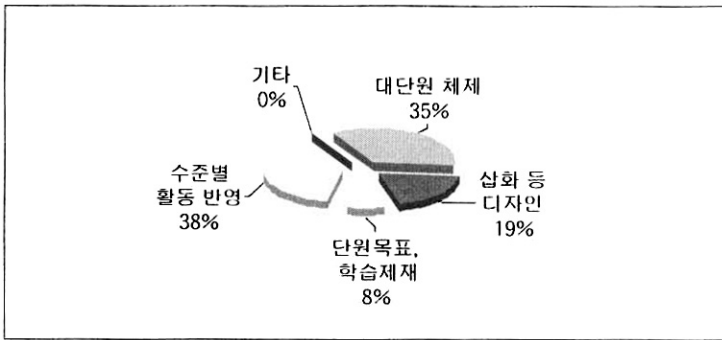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실행 양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국어 교과서이다. 주지하다시피,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 공식적인 수준별 활동은 모두 단원 말미에 제시된 '능력별 선택형, 적성별 선택형, 통합형'의 과제 활동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교사나 학교에 따라서 자율적인 재구성의 형태로 좀더 다양한 수준별 수업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후술할 각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의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현황은 주로 본고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와 이경화(2002)를 참조한 것이다. 먼저 제7차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현장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본고에서 간단히 조사한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sup>6)</sup>

첫째,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教師들의 認識을 알아보기 위해 '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준별 활동 반영(38%), 대단원 체제(35%), 삽화 등 디자인의 변화(19%), 단원 목표와 학습 제재의 변화(8%)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림 9〉 7차 국어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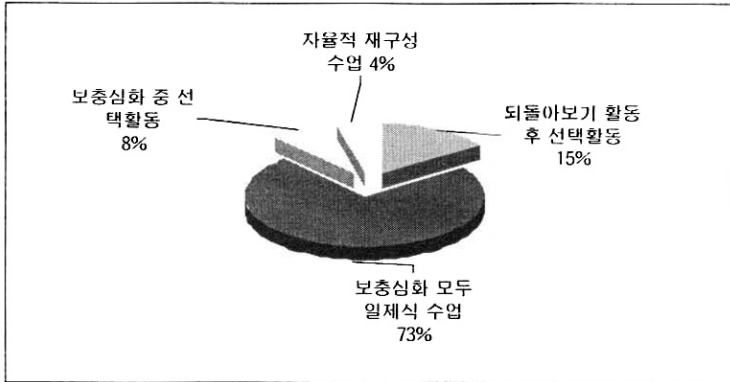
이러한 반응의 결과는, 비록 2001년도에 조사된 것이긴 하지만, '수준별 활동 반영'이라고 밝힌 교사들의 반응이 38%에 불과하다는 점을

6) 2001년도 전주교대 교사 연수 설문 대상자 30명 중 26명 (복수답 2, 무반응자 2 제외). 이는 전북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간단히 설문 투입한 내용이다. 설문 대상자 수는 많지 않지만, 대체로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교루 참가하였고, 전체적인 반응의 결과는 후술되는 중등의 경우(전은주, 2003)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통해서 보더라도,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수준별 교육의 특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교사들의 인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둘째로, '보충, 심화 선택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단원 학습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보충 심화 모두 일제식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비율이 73%에 이른다. 원래의 교과서 제작 의도에 해당하는 '되돌아보기 활동 후 선택활동 실시'에 대한 반응은 15%에 불과하다. '보충, 심화 두 활동 중 하나를 일제식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반응이 8%, '교과서에 관계없이 학습활동을 재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반응이 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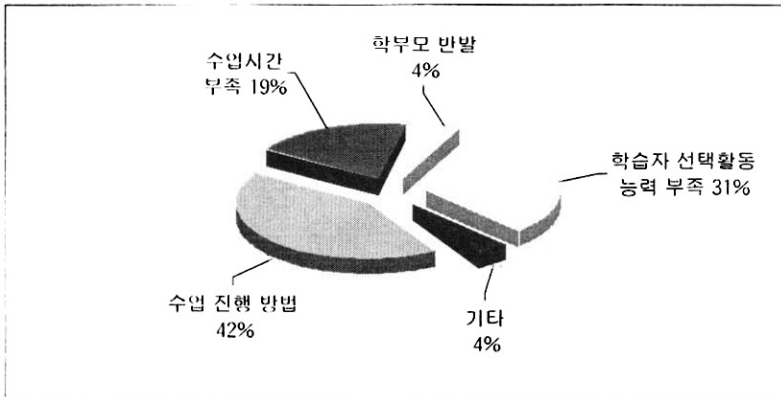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7차 교육과정 수립 초기에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현실로 드러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림 10> 보충 심화 대단원 학습활동 운영 방식

셋째로, '국어과의 수준별 학습과 관련한 보충, 심화 선택활동의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업 진행 방법의 어려움'이 42%, '학습자 선택활동 능력 부족'이 31%, '수업 시간 부족'이 19%, '학부모 반발' 등이 4%

로 나타났다.



〈그림 11〉 보충 심화 선택활동 운영상의 문제점

수준별 수업 진행 방법상의 어려움은 다인수 학급의 경우 이미 예견된 것이긴 했다. 그러나 비교적 개별 지도가 가능한 15명 내외의 소인수 학급이라 하더라도 운영상의 어려움은 크게 다르지 않다. 수업 시간 부족 역시 많은 현장 교사들의 호소와 불평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6차에 비해 30% 정도 감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과서를 통해 제대로 구현되었는지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습자들의 선택활동 능력 부족이 31%에 이르고 있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1학년 아이들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고 한다. 심화 보충 활동 자체가 학습자들의 자기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학습자들의 선택 능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일부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편의상 보충 활동에 해당하는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교사가 학생들에게 활동 과제를 지정해 주기도 하는데, 이 경우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런데 교사들의 반응과 면담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대체로 성공적인 수준별 수업을 이끌어가는 교사들은 교재에 따르기보다는 교사의 자율적 재구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투입한다는 점이다.

현장 교사들의 기타 지적과 제안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보충 심화 구분이 불명료하고 학년별 수준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좀더 확실한 구분이 요구된다. 보충과 심화 활동의 구분이 불명료하다는 지적은 국어 교과서에 적용된 광의의 수준의 개념을 교사들이 협의의 수준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서혁(2000)이나 이경화(2002)의 분석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선택형이 아닌 보충심화 형태의 학습활동에서도 둘 사이의 활동의 난이도가 바뀐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즉, 보충 활동을 의도한 첫째 활동보다는 심화 활동을 의도한 둘째 활동이 더 쉽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는 국어 교과서상의 각종 내용, 학습활동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난이도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아울러 학년 내는 물론 학년간의 텍스트나 과제 활동과 관련한 수준 차에 대한 고려가 좀더 요구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여기에는 텍스트의 수준, 분량, 과제 해결 시간, 사과의 깊이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텍스트의 수준으로는 어휘, 문장, 내용, 표현 방법 차원 등의 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일부 국어 선택과목에서 도입되고 있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과 분량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과제 해결의 객관적 처리 및 판단 기준 개념 도입이 요구된다.

② 자기평가와 관련한 발문이 추상적이어서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이 따른다. 주지하다시피, 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학습자들의 보충 심화 활동이나 선택활동에 들어가기 전 '되돌아보기' 활동이나 단원의 마무리에서 자기평가 혹은 상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중학교

나 고등학교 국어 과목 교과서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교과서들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초중등 국어 교과서의 자기평가나 발문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발문 자체가 너무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자기 평가 혹은 상호 평가의 목적이 단위 목표를 재확인 하는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명무실한 평가 항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의 내용이 단위에서 학습한 내용들 즉, 지식이나 원리, 태도 등과 관련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③ 단순한 활동반복이 아닌 다양한 활동 구성 등을 통한 심도 있는 보충심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제5, 6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반응도 그러했지만, 제7차와 관련하여서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단위 내 활동의 반복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단원제로 이루어진 제7차 초등 국어 교과서의 경우 ‘도입-원리-적용-마무리-보충·심화’의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각각의 단계와 과정은 분명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활동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 단계 간에 학습 내용이나 활동 반복은 불가피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는 단위 간 혹은 학년 간 활동의 내용이나 방법의 반복에 따라 학습자들의 동기와 흥미를 감소시킨다는 점이다. 국어과 교육에서 반복 심화 형태의 학습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반복적인 과제나 활동을 가능한 한 통합함으로써 수업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

④ 수업 시간이 부족하고 교사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업 부담 경감(輕減) 대책이 필요하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을 수립하면서 교육과정상의 학습 내용을 30% 정도 줄이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대단원 체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소단원 체제에 비해 2주 가량의 학습량 경감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반등은 여전히 수업량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이와 관련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요구되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수업량 부담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유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단원말의 보충 심화 활동들을 모두 일제(一齊)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충 심화 활동들을 학습자 수준에 따라 별도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교사의 입장에서는 결국 전체를 모두 다루게 되는 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의 정신에 따라, 즉 교실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이 가능하도록 기초, 보충, 심화 활동의 선택 활동 폭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초, 심화, 보충 활동 과제를 명시해 주고, 그 수준차도 분명하게 구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 학교나 교실 상황에 따라 교사들이 각각의 단원들에 대해서도 기본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되 전체적으로 좀더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둘째, 수준별 교수-학습 활동에 적절한 충실한 자료들을 개발하여 오프라인(off-line)과 온라인(on-line)상의 보급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에 각 시도 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별 학습 자료들이 개발 보급된 것은 사실이나, 내용상의 충실성이나 수업 상황에 직접 투입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다양한 교과와 많은 수업 시수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별도의 재구성 과정을 많이 거치지 않고도 교사들이 바로 복사하여 수업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초등의 경우 국어과 보조교사제, 장기적으로는 전담교사제 활용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조교사제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교·사대 교육실습 제도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학부모 보조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담교사제는 초등의 경우 예체능 관련 교과나 영어 교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국어과도 장기적으로 전담교사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그 이전에 미국의 일부 주에서와 같이 팀티처(team teacher) 제도나 동학년 중임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sup>7)</sup>

7) 예컨대,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 동일 학년 내에서 서로 다른 반의 교사들이 특정 과목

궁극적으로 수준별 수업의 기본 원칙은 학교와 교실 상황에 맞게 자율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 2. 중등학교의 경우

중등학교의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역시 앞에서 조사된 초등학교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전은주(2003)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부산, 경남지역 중등학교 국어 교사 90명을 대상으로 한 전은주(2003)의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들에게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 대상자의 약 49%가 '수준별 교육'이라고 반응했다. 이에 대해 전은주(2003: 132)에서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고시된 지 5년이 지났고, 이에 준하여 개발된 교과서로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만 설문 조사 결과임에 비추어 볼 때,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이 교사들에게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전술한 2001년도 초등 교사 대상 설문보다는 조금 높은 반응이지만, 과반수가 안 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둘째, '국어과 교과서가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조사 대상 중 약 28%만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약 64% 가량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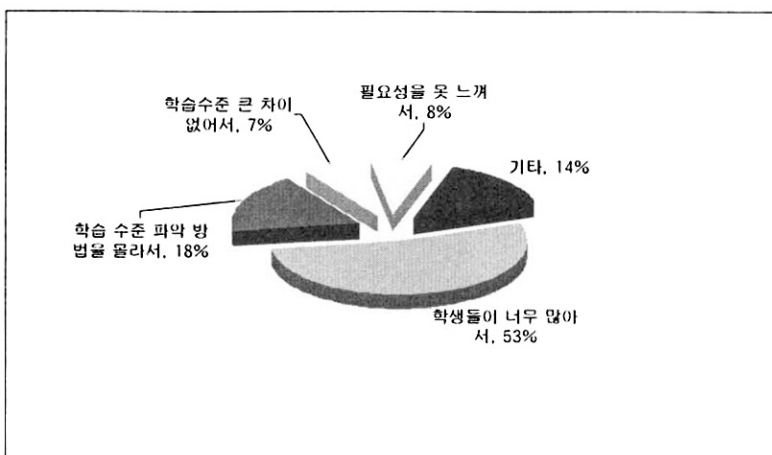
셋째, '국어 수업을 할 때 교과서의 보충·심화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약 42%의 교사가 '보충과 심화를 전원에게 학습하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의 약 93%가 보충과 심화 활동의 선택을 교사가 한다고 응답하였다. 보충 심화 활동을 모두 일제식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반응은 앞의 초등학교의 경우(73%)보다는 훨씬 적은

---

을 전담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팀 티처(team teacher)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한다. 예컨대 A반 교사가 A, B반의 영어를 가르쳐 주고, B반 교사가 A, B반의 수학을 모두 가르치는 형태이다. 그밖에 한 교사가 동일 학년을 여러 해에 걸쳐서 맡는 동일학년 중임제도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치이지만, 93%의 교사들이 보충심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반응은 전반적으로 교사 주도의 전통적인 수업 진행 방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중등학교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수준별 수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사가 학생들에게 개별 수준을 판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많다. 그 이유에 대한 반응으로는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 수가 많아서(53%)', '학습 수준 파악 방법을 몰라서(18%)', '학습 수준에 큰 차이가 없어서(7%)', '필요성을 못 느껴서(8%)'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림 12> 수업 중 학생수준을 개별 판단해 주기 어려운 이유(전은주, 2003: 137. 필자 재구성)

중등학교 국어과 수준별 수업과 관련한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앞의 초등학교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초중학교를 막론하고, 국어과 수준별 수업이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서, 단원 목표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보충 심화 활동으로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점, 학습자들의 자기 평가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은 모두 공통

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특히 중등의 경우 초등에 비해 교사 주도적인 수업 진행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교수-학습 풍경이 7차에 들어서도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그런데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어과 수준별 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sup>8)</sup>

첫째, 내신 성적 산출과 관련한 평가 상의 문제점이다. 수준별 수업을 집단에 따라 다르게 하고도, 평가는 내신 성적 산출 때문에 동일한 기본활동 중심으로만 출제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심화 집단 학생들의 동기 유발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둘째, 수준별 수업 운영의 시기와 횟수 문제이다. 교육부(1999)나 (초등)교사용 지도서는 물론 이경화(2002), 전은주(2003)에서도 차시별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이상(理想)적으로는 매시간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으나, 각종 현장 적용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중등학교 교사들은 매시간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호소한다. 중학교의 경우 수준별 수업 적용을 위한 사전 조사에서 학생들이 매시간 운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교사들은 중단원 혹은 대단원 중심의 운영을 선호한다. 관련 교재 제작 등 교사가 느끼는 수업 부담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심화 보충 판단의 기준과 관련한 문제이다. 즉, 보충과 심화 대상 학생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노명완(1997: 34)에서는 보충 대상 학생과 심화 대상 학생을 구분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국가 기준(국가 수준의 검사에서 80%의 성취율)에 의한 결정이나 학교 자체의 결정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잠정적으로는 국가 기준을 수용하면서 학교 자체에서 이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진술은 수준별 교육과정의 초기 입안 단계에서 기

8)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1999), 오성교(2001), 전남 고흥교(2001), 전주 덕일중(2002) 등 다양한 현장 연구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본적으로 협의의 수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성취도평가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국어과 전국 성취도 평가가 선택적으로 실시된 바도 있다. 문제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서 심지어는 동일 학교 내에서도 연도에 따라 학생들의 성취도가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보충 심화의 판단 기준이 40-60%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 기준의 궁극적인 잣대는 보충반의 편성 규모와 관련된다. 즉, 학습 부진아 집단에 머물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규모의 보충학습반 편성이 사실상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수업 집단의 편성과 수업 분위기, 학습자 정서 문제이다. 초등 학생에 비해 자아정체감이나 가치관이 훨씬 발달한 중등학생들의 경우, 보충집단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동기유발은 물론 실질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 IV. 개선방안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는 이상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과서 단원말의 선택활동이라는 획일적 방법을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또한 '수준'의 개념을 학습자들의 관심, 흥미, 학습 속도 등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수준별 교육을 모호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 개선 방안은 현재의 수준별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개선이 최선의 대안이다.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할 학년별 표준 성취수준에 대한 전문적인 합의와 그에 따른 내용선정 작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에 '수준은 없고 수준별 학습활동의 예만 있다'(이도영, 2000: 71)는 지적이나, 수준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국어과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국어과 교육 내용의 수준을 어떻게 가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혜승(2001)의 주장은 궤(軌)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결코 단시간에 해결 될 수 있는 간단한 성격은 아니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텍스트의 수준, 분량, 과제 해결 시간, 사고의 깊이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텍스트의 수준으로는 어휘, 문장, 내용, 표현 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은 학교와 교사들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연구 결과들을 분석해 볼 때, 현행처럼 획일적으로 기본, 심화, 보충의 틀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 '기본+심화'의 형태나 '기본+보충'의 형태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성 신장에 초점을 맞춘 기본 활동과 그에 대한 보충 활동의 형태를 기본 형태로 하는 것(창의성 신장 중심의 기본활동 + 보충지도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sup>9)</sup> 학교별로 '기본+심화' 또는 '기본+보충' 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한 선택은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교사, 학생들의 몫이다.

이와 관련한 전제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습자들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획일화된 국정 교과서 제도만으로는 교사들의 단원 재구성 부담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9) 현 상태에서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는 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해진 교과서를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 또 이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된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 이성영 외(2001)의 수업 운영 방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성영 외(2001)에서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형태인 '능력별 차별형'과 '적성별 선택형' 이외에, 집단 간 학습과정을 차별화하는 방안, 집단 간 학습시간을 차별화하는 방안, 심화·보충 학습 활동의 제시시점을 다양화하는 방안, 교과서 활용 순서를 다양화하는 방안, 선택 학습의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이건 간에 '지금 여기'의 수행적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 학습자가 선택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실제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 당장으로서의 대략적으로나마 교사가 학습자들의 수준(능력, 관심, 흥미, 학습 속도)과 특성에 비추어 보충·심화 활동의 취사선택과 교수·학습 전개 방법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안목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수준별 교육의 핵심은 '수업방법'에 대한 이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 교사의 (단원) 재구성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교사 주도적 수준별 수업 구상이 필수적이다.

둘째, 보충심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시별, 단원별 심화 보충 자료의 보급 역시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는 특히 다양한 교과 수업을 담당해서 수업 부담이 큰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물론 현재 학교 현장에는 각 교육청 등에서 제작 배포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수준별 학습 자료들이 있다. 문제는 홍보 부족이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실제 수업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 특히 각 해당 과제마다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안내까지 담이줄 필요가 있다.

셋째,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텍스트나 활동들이 대략적으로 학습자들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것인지, 학년별 위계상의 문제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1학년 단계의 초기 입문기 문자 지도의 적절성에 대한 보완 작업이 요구된다. 이는 유치원 과정이나 'pre-school'의 교육정책적 고려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넷째,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대단원 체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대단원제는 통합적 활동, 교사의 수업 유연성 확보, 심화 보충 활동이 유리하다는 등의 장점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교과서 혹은 영역 간 활동의 반복과 중복, 그에 따라 학습자가 지루함을 느낀다는 점 등은 개선의 필요성을 말해 준다.

넷째, '수준'의 개념을 학습자의 관심, 흥미 등으로 확대한 것 역시 장단점이 있다. 오히려 협의(狹義)의 수준과 광의(廣義)의 수준을 분명히 하되,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협의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부분적으로 광의

의 수준을 활용하는 방안이 옳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본래적 의미의 수준별 수업시 교사는 그에 따른 학습자들의 정서적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나 학부모 개인적으로는 물론 전체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인식 전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한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교사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인센티브 부여가 요구된다. 심화 보충 수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재 준비, 추가적인 지도 시간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충분한 보충 지도를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교사들의 수업 시간 연장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한 행·재정적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여섯째, 교사들의 학년중임제나 학급 규모에 따른 보조교사제 활용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학년 중임제가 어려울 경우 저, 중, 고학년으로 나누어 중임하게 하는 방법도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보조교사제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교·사대 교육실습 제도와 함께 교육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학부모 보조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V. 맺음말

본고는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을 앞 둔 시점에서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수준별 교육과정과 관련한 초기 개발단계의 논의들을 재검토하고,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 구성에 실마리를 제공해 보고자 한 것이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우리의 현실적인 교육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지적되어 왔다. '수준'의 개념을 학습 성취도 중심의 '협의(狹義)의 수준(水準)'이 아닌 '흥미, 관심'을 포함하는 '광의(廣義)의 수준' 개념으로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실행상의 어려움

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을 단계형이 아닌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개발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초중등학교 국어과 수준별 수업 운영 실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수준별 수업은 아직도 애초의 계획과 크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은 물론 교과서, 교수-학습 환경 등 현행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은 전반적으로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등학교의 경우, 심화 보충의 기준 설정, 내신 성적 산출과 관련한 평가, 학습자들의 정서 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 개선 방안은 현재의 수준별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개선이 최선의 대안이다.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할 학년별 표준 성취수준에 대한 전문적인 합의와 그에 따른 내용선정 작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수준, 분량, 과제 해결 시간, 사과의 깊이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텍스트의 수준으로는 어휘, 문장, 내용, 표현 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처럼 획일적으로 기본, 심화, 보충의 틀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 '기본+심화'의 형태나 '기본+보충'의 형태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성 신장에 초점을 맞춘 기본 활동과 그에 대한 보충 활동의 형태를 기본 형태로 하는 것('창의성 신장 중심의 기본활동 + 보충지도'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학교별로 '기본+심화' 또는 '기본+보충' 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전제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습자들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획일화된 국정 교과서 제도만으로는 교사들의 단위 재구성 부담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논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04. 10. 30. 투고되었으며, 2004. 11.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4. 11.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제7차 교육과정 연수자료.
- 김경자(1998),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총론)에 대한 토론(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연구자료 ORM98-4-1.
- 김대행 (1997), “21세기를 대비하는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과제”, 『21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 김주훈·김재춘(1998),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ORM 98-4-1.
- 노명환(1997),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1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 박영목(1977), “국어과 교육의 내용 구조화와 수준 결정의 준거”, 『21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 범국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2004), 『교육과정 개편 방향 공청회 자료집』.
- 서혁(2000), “제7차 초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16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오성고등학교(2001), 『일반계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지정교육과정 연구학교 보고서.
- 이경화(2002),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15집, 국어교육학회.
- 이도영(2000),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 16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삼형(1998),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제문제-수준의결정을 중심으로”, 『교원교육』 1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성영, 김광명, 신준식(2001), “초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18,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이인재(2003),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 탐색”,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3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재승(2001), “국어과 수준별 수업의 특성과 방향”, 『새국어교육』 61집, 한국국어교육학회.
- 이주섭(1999),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 『청람어문학』 21집, 청람어문학회.

- 이지호(2000),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 『제7차 국어과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2000),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의 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실태조사”, 『교육과학연구』 제31집 2호(특별호).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 이화진(2000),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지원 연구』, 교육부.
- 전남고흥고(2001),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 교과의 목표지향 평가 방안 연구』, 전남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보고서.
- 전은주(2003), “국어과 수준별교육과정의 실행(實行)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국어교육』 110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전주덕일중 교육과정개정위원회(2002), 『교육기관과 학교간 연계체제에 의한 중학교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 정구향(1998),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방안 및 교수-학습 자료”, 『제7차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 정립을 위한 세미나』,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세미나 자료집 ORM98-4-1.
- 정혜승(2000), “창조적 지식 기반 사회를 대비한 국어과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육과학연구』 31집 1호.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 정혜승(2001),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검토”, 『교육과학연구』 32-1,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 [http://cat2.riss4u.net/servlet/Xml2Html?p\\_control\\_no=3007237](http://cat2.riss4u.net/servlet/Xml2Html?p_control_no=3007237)
- 조난심 외(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CR97-34, 한국교육과정개발원 교육과정개정위원회.
- 조인진(1998),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고찰”, 『교육과정연구』 16(1), 한국교육학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제7차 교육 과정 개정에 따른 국어과 수준별 교육 과정 적용 방안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구』.
- Slavin. R.(1987), Ability Grouping and Student Achivement in Elementary Schools, Review of Education Research 57(3)

〈초록〉

## 국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서혁

수준별 교육과정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우리의 현실적인 교육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지적되어 왔다. '수준'의 개념을 학습 성취도 중심의 '협의(狹義)의 수준(水準)'이 아닌 '흥미, 관심'을 포함하는 '광의(廣義)의 수준' 개념으로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실행상의 어려움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국어과 교육과정을 단계형이 아닌 심화 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개발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초·중등학교 국어과 수준별 수업 운영 실태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수준별 수업은 아직도 애초의 계획과 크게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은 물론 교과서, 교수-학습 환경 등 현행 프로그램 자체가 아직은 전반적으로 미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등학교의 경우, 심화 보충의 기준 설정, 내신 성적 산출과 관련한 평가, 학습자들의 정서 등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비해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수준별 수업 개선 방안은 현재의 수준별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개선이 최선의 대안이다.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할 학년별 표준 성취수준에 대한 전문적인 합의와 그에 따른 내용선정 작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수준, 분량, 과제 해결 시간, 사고의 깊이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텍스트의 수준으로는 어휘, 문장, 내용, 표현 방법 등에 대한 고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처럼 획일적으로 기본, 심화, 보충의 틀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 '기본+심화'의 형태나 '기본+보충'의 형태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창의성 신장에 초점을 맞춘 기본 활동과 그에 대한 보충 활동의 형태를 기본 형태로 하는 것('창의성 신장 중심의 기본활동 + 보충지도'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학교별로 '기본+심화' 또는 '기본+보충' 형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전제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와 학

습자들이 '수준'에 맞는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획일화된 국정 교과서 제도만으로는 교사들의 단위 재구성 부담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논의를 거쳐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국어과 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 활동, 교과서, 성취도

〈Abstarct〉

Current Issues and Several Suggestions  
Regarding the 7th National Curriculum and KLE

Suh, Hyuk

The 7th national Korean language curriculum, so-called 'Differentiated and Individualized Curriculum', has begun to apply to schools from 2000 in Korea. From that time on, lots of researchers has pointed out it's problems and issues concerning the condi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point out the issues and problems of the 7th curriculum, which will be a good chance to modify the curriculum or develop a new one.

As a result, there are many issues and problems in the 7th curriculum, which was not intended at the starting point. First of all the conditions for the curriculum is not sufficient to implement the differentiated and individualized curriculum both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t will be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modify largely the curriculum, which needs to consider the levels, quantities, time for task-solution, depth of thinking. In that case, we need to reach a consensus for some standards of achievement level for every grades. At the moment, it is not easy to teach students with grouping by 2 or 3 levels such as basic, advanced and supplementary course in a class. Instead of that, it will be more reasonable for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to choose 'basic+advanced' or 'base+supplementary' model. Also, for this, much more teaching materials should be developed so that schools, teachers and students could choose a appropriate book for their condition and level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differentiated and individualized curriculum, textbook, degree of achievement, advanced and supplementary activity.